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7월 24일 10:00 이후부터
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 목 :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

- 한국은행은 성장잠재력 확충 및 경기회복 지원 등을 위해 금융중개 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총 한도를 3조 원 증액하고 프로그램간 한도도 조정하기로 하였음(시행일자 2014.9.1.일)
 - 중소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차원에서 「설비 투자지원 프로그램」을 신설하고, 이를 위해 총 한도를 3조원 증액
 - 한편 세월호 사고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경기부진 업종(예 : 음식·숙박업, 도소매업, 여행업, 운수업 등)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프로그램간 한도를 조정
 - 경기부진업종을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으로 추가하고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 한도 1조원을 전용하여 지원
- 특히 이번 방안에는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반영하였음
 - 제도도입 이후 1년간 취급된 신규대출*(재대출 또는 만기연장 등을 제외)만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실질적인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
 - * 다만 경기부진업종 지원의 경우 기존 대출의 금리감면 등 금융이용여건 개선도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재대출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계획
 - 최근의 내수위축 등 경기회복세 둔화에 대응하여 지원효과가 향후 1년간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

-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**설비투자와 관련성이 크지 않은 일부 업종***은 제외하는 한편 **지원기간을 장기(최대 5년 예정)로 설정함**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**안정적인 설비투자자금 공급**을 뒷받침

* (예) 상가 등 상업용부동산 구입·임대 관련 대출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업·임대업, 음식·숙박업, 도소매업 등

- **최대 지원기간**을 미리 정하여 **한시적으로 운영함**으로써 **유동성 조절부담을 완화**

- 이번 조치로 인해 **시중 유동성**이 설비투자재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및 지방소재 경기부진업종 등으로 **보다 많이 공급***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* 한국은행 지원비율 25% 전제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시설자금 신규대출은 최대 12조원 증가

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 및 프로그램별 한도 조정 내용 (조원)

	현행	2014.9.1일 이후	비 고
▪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	1.5	1.5	-
▪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	2.0	1.0	△1.0
▪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	0.5	0.5	-
▪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	3.0	3.0	-
▪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(신설)	-	3.0	+3.0
▪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	4.9	5.9	+1.0
총 한도	12.0¹⁾	15.0¹⁾	+3.0

주: 1) 유보한도 포함

<붙임>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방안

문의처 :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팀장 김태경, 과장 김준철, 과장 이종성

Tel : 759-4491, 4502, 4410

Fax : 759-4490

공보실 : Tel (02) 759-4015, 4016

“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

한국은행
THE BANK OF KOREA

(붙임)

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방안

1. 지원배경

- 최근 우리경제는 그간의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모습
 -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, 소비·투자 등 내수부문이 위축되면서 경기회복세가 제약되고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우려
 -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경제주체들의 심리 회복도 더딘 가운데 소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
- 이러한 경제상황에 대응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한편, 세월호 사고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비 관련 경기부진업종을 지원

2.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방안

- ◆ 중소기업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자금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, 이를 위해 총 한도를 3조원 증액

지원 필요성

- 지난해 큰 폭으로 줄어든 중소기업의 설비투자*는 금년에도 계속 감소할 전망

* 주요 중소기업(1,249개)의 설비투자 실적 및 계획(조원)
: 2012년 8.2 → 2013년 7.2 → 2014년 계획 6.7
(2014년 설비투자 전망, 정책금융공사)

□ 중소기업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할 필요

- 중소기업의 경우 설비투자시 차입 의존도가 높은 점*을 감안할 때 규제완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투자활성화 대책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 여건 개선도 긴요

* 설비투자자금중 외부자금 비중(2013년 기준, 정책금융공사)
: 대기업 32.7%(간접금융 14.9%), 중소기업 48.0%(간접금융 45.8%)

- 기업들은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기회복과 더불어 금융지원 강화를 희망

-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바라는 사항(2014년 중소기업 설비투자 전망 조사, 기업은행)
: 내수경기 부양(59.7%), 조건이 양호한 정책자금 공급(37.7%) 등
- 설비투자 부진요인(2014년 설비투자 전망, 정책금융공사)
: 수요부진(35.5%), 불확실한 경기전망(31.2%), 자금조달난(20.1%) 등

지원방안

- (지원방식) 중소기업 설비투자 관련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을 신설

- (한도규모) 3조원으로 설정

- (지원대상) 은행의 중소기업 시설자금대출(원화 금융자금대출)을 지원대상으로 하되, 설비투자와 관련성이 크지 않은 부동산 취득 등의 비중이 높은 일부 업종*은 제외

* (예) 상가 등 상업용부동산 구입·임대 관련 대출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업·임대업, 음식·숙박업, 도소매업 등

- 한편 중소기업 설비투자와 관련된 은행의 신규 자금공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재대출 또는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은행의 신규 대출로 한정

- (지원기간)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한시적 조치인 점을 감안하여 제도시행 이후 1년간 취급된 은행 신규대출에 한해 지원하되, 가급적 대출만기까지 지원(예: 최대 5년)
 - 은행 대출만기까지 가급적 당행 지원을 지속하여 은행의 대출취급유인을 제고하고 기업의 설비투자 수요에 부응
- (한도배정) 은행의 신규대출 취급실적에 대하여 일정비율(예: 25%)로 지원
 - 당행 지원비율 25% 전제시 은행 대출실적 기준으로 총 12조원까지 지원 가능
- (지원금리) 연 1.0%로 설정

3. 경기부진업종 지원방안

◆ 경기부진업종을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으로 추가하고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 한도 1조원을 전용하여 지원

지원 필요성

- 세월호 사고 직후 위축된 소비 및 관련 서비스업 활동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회복 정도가 미흡
- 이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경기부진업종*, 특히 금융이용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할 필요

* (예) 음식·숙박업, 도소매업, 여행업, 운수업 등

지원방안

- (지원방식) 현행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신규 지원부문으로 선정하여 지원
- (한도규모) 1조원(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4.9조원에서 5.9조원으로 증액)으로 하되,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 한도(2.0조원)에서 전용
- (지원대상) 경기부진업종 중 각 지역본부장이 해당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체 선정한 부문에 대한 은행의 운전자금(만기 1년 이내) 대출
 - o 신용도가 낮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고신용 등급(1~3등급)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계획
- (지원기간) 세월호 사고 여파 등에 따른 경기부진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인 만큼 제도시행 이후 1년간 취급된 은행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지원
- (한도배정) 은행의 신규대출 취급실적에 대하여 일정비율(예: 25%)로 지원
 - o 당행 지원비율 25% 전제시 은행 대출실적 기준으로 총 4조원까지 지원 가능
- (지원금리) 현행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한 연 1.0%

4. 시행시기

-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
 - o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은 은행 등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